

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

불국사 석가탑서 발견 ... 중국보다 100여년 앞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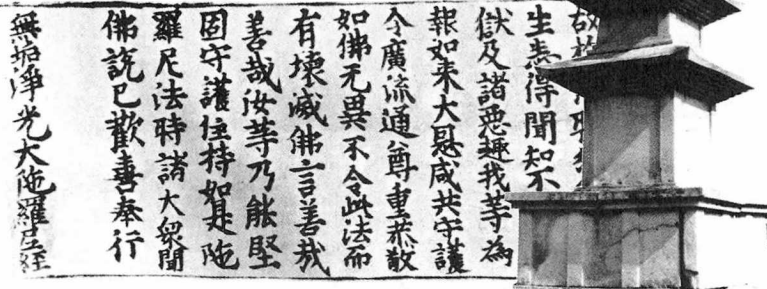
1966년 10월 13일, 경주 불국사의 3층석탑(석가탑)을 보수하기 위해 해체작업중이던 인부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. 2층 탑신 속에서 금동제 사리함을 발견한 것이다. 높이 18cm의 정방형으로 된 사리함 표면에는 화려하고 우아한 연꽃무늬가 투각(透刻)돼 있고 그 속에는 크고작은 수정구슬과 나무로 만든 소탑(小塔), 구리거울 등 20여점의 장엄구와 함께 부분적으로 삭은 다리니경 두루마리가 들어 있었다.

이튿날 서울에서 달려온 김상기·이홍직 문화재위원은 이 경문이 목판으로 인쇄된 것임을 확인하고, 그 내용 중에 중국 측천무후(684~705)시대에 새로 만들어 쓴 한자가 섞여 있을 뿐 아니라, 석가탑이 751년 김대성(金大城)에 의해 불국사가 대규모로 증창될 때 세워진 것으로 미루어 적어도 그 이전에 간행된 목판본으로 추정했다.

이 소식은 곧 "세계 최고(最古) 목판인쇄물 발견-1천2백여년전 신라시대 <다라니경>"이란 주먹같은 활자를 달고 각 일간지의 1면 톱을 장식했는데, 전문가들은 "세계최고의 이 목판인쇄 경문은 전세계 학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것"이라고 흥분해마지 않았다.

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최초, 아니 세계최초의 목판인쇄 권자본(두루마리)인 <무구정광 대다라니경>(국보 제126호)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고, 이미 8세기 중엽에 고도로 발전했던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수준을 세계에 입증하는 계기를 낳았다.

이 <다라니경>은 너비 6.5cm, 길이 약



8세기 중엽 우리나라의 인쇄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<무구정광 대다라니경>과 불국사 석가탑.

1966년에 발견된 <무구정광 대다라니경>은 완벽한 형식과 특징을 갖춘 세계최고의 목판인쇄물로서 우리 인쇄문화가 이미 8세기 중엽에 고도로 발달했음을 입증한다.

620cm의 종이에 목판으로 찍은 것으로, 발견당시 종이가 습기로 썩거나 산화로 부스러져서 책머리의 간기(刊記) 등이 없어졌는데, 그 후 1988년 같은 지질의 종이를 만들어 보수하기도 했다.

이 경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770년경에 간행된 일본의 <백만담 다라니>(법륜사 소장)가 가장 오래된 인쇄물로 행세해왔다. 이것은 바닥지름 10.5cm, 높이 19.5cm의 작은 목탑 100만개를 만들어 각각 <다라니> 한 장씩을 그 속에 납땀했다고 해서 그렇게

불리는데, 실상은 우리것처럼 전문을 다 새긴 목판인쇄물이 아니라 부분부분을 발췌해서 조그만 나무판 조각에 새겨 스탬프를 찍듯 날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우리것과는 비교가 안된다.

중국의 경우는 당나라 개원·천보 연간(713~755)에 목판인쇄가 처음 대두했다고 하지만, 실제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은 868년에 간행된 <금강반야바라밀경>이다. 이것은 왕칭이란 사람이 부모의 공양을 위해 만든 너비 30cm, 길이 480cm의 두루마리인데, 영국학자가 둔황(敦煌)의 천불동에서 발견한 것으로 현재 대영박물관에 보관돼 있다.

최근 중국이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국제회의에서 우리의 <무구정광 대다라니경>이 세계최초의 인쇄물로 공인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어 우리로 하여금 실소(失笑)를 금치 못하게 한다. (W)

출판저널

통권 제207호 / 1997년 2월5일 발행

발행인 — 정진숙
 편집인 — 전병석
 인쇄인 — 이일수
 편집위원 — 권영빈 김문환
 송상용 이주한
 편집주간 — 이승우
 편집장 — 김지연
 기자 — 박남정 마정미
 최성일 이현주
 디자인 — 윤정자
 사진 — 김지옥

업무부장 — 윤동호
 업무·광고 — 이희천 김유희
 김동필 천창환

(재) 한국출판금고
 상임이사 — 최학수
 총무부장 — 이정수
 전화: 732-1434~5

등록 1987년 6월 9일-다 435
 대체구좌 010041-31-2826477
 발행처 — (재) 한국출판금고
 인쇄처 — 평화당인쇄주식회사

출판저널: 110-190 서울 종로구
 시간동 105-2 출판문화회관 2층
 전화: 732-1431~3 FAX 722-1174
 하이텔: chulpan 천리안 book 732

<출판저널>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.

《출판저널》 정기구독 안내

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<출판저널>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.
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,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택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.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(농협·수협·축협 포함)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, 주소,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-31-2826477을 이용하십시오.

공급: 한국출판협동조합
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-6
 716-5616~9, 716-5621~3

“
 살아 움직이는 손길

큰,
 ”

책장을 넘기는 순간입니다.

■ 독서계의 흐름과 출판계의 이모저모로 이채롭게 꾸며,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엮은 합철본을 새로 제작, 한층 자료가치를 높여 판매하고 있습니다.

♣ 출판저널 합본호 판매안내

- 합본1호(날권1~10호) 5,000원(판매)
- 합본2호(날권11~20호) 5,000원(판매)
- 합본3호(날권21~30호) 5,000원(판매)
- 합본4호(날권31~40호) 5,000원(●)
- 합본5호(날권41~50호) 5,000원(판매)
- 합본6호(날권51~60호) 9,000원(판매)
- 합본7호(날권61~70호) 10,000원(판매)
- 합본8호(날권71~80호) 10,000원(판매)
- 합본9호(날권81~90호) 10,000원(판매)
- 합본10호(날권91~100호) 10,000원(판매)

* 구독의 불편·개신사항이 있으시면 전화·서신등을 통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* 우편료는 합본제작비로 인해 수취인 부담관계로 직접방문, 구입하시면 유리합니다.